



2018년 10월

## 하늘이 품은 하요한/ 손숙선교사 사역현장 소식

결실의 계절 10월!

현지는 지난 수퍼태풍으로 찌는듯한 더위를 물고 갓는지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한 고국의 가을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동안의 변화 가운데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신 후원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동역했던 현지의 소식을 드립니다.

**현지소식:** 홍콩은 중국으로 정치권을 이양하며 일국이체제 속에 20년이 넘어서며 점점 중국 내지의 정치와 문화권 속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달에는 정치권 이양 20주년을 기념하며 “홍콩공산당”이 창건되었습니다. 이 홍콩 공산당은 ‘시진핑 사상을 받들어 무산계급 혁명을 추진하며, 자본가의 사유재산을 몰수 분배 한다’고 밝히며, 홍콩 정부가 하루빨리 일국양제를 포기하고 중국과 통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홍콩인들에게 많은 불안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은 외국으로 떠나는 현지인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계청에 따르면 이민을 신청하고 다른나라로 떠나려는 수가 3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정작 현지의 삶들은 빡빡한데 중국내지의 돈 있는 사람들이 홍콩으로 들어오면서 집을 사들이고 부동산을 부추기며 높은 소비생활을 담은 생활비로 현지인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정치 문화에 하나의 나라 두 체제 속의 홍콩에 중국이 직, 간접적으로 빠른 개입에 불안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속에 세워나가는 새 개척교회 “흔아얀단교회”는 목양을 통해 매일 성경읽기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주중에도 3개(주사랑, 비전, 청년)의 목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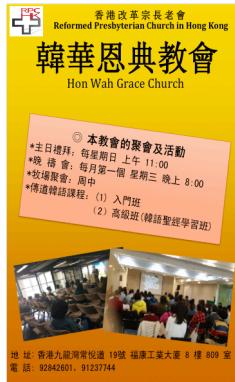


- “주사랑 목장”은 직장인으로 구성된 형제자매들의 목장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직장을 마치고 목장가장인 ‘량려메이자매’의 집에서 식사를 하며 모임을 갖고,
- “비전 목장”은 매주 수요일 저녁 한국어를 구사하는 현지인들이 모여 한국으로 찬양도하고 성경공부를 하는 목장입니다. 이를 섬기는 자매는 현지대학에 강의를 하는 ‘꾸온자매’입니다.
- “청년 목장”은 하선교사가 강의하는 현지대학의 기독동아리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출석하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목장입니다. 이는 은총이가 리더로 섬기며 베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3개의 목장이 교회 개척의 주춧돌 역할을 감당하며 11월 추수감사주일에는 이웃의 전도 대상자들을 기도하며 접촉을 하여 교회로 초청하는 ‘새생명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회와 김치전도반을 개설하여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콩 공산당 창건 모습)

이러한 가운데 지난 총회선교 본부에서 지급되었던 현지인 지도자 양성을 위한 장학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이 장학금을 받은 위국준형제는 청소년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정한 구세주가 하나님되심을 믿으며 복음전도자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선교사의 소개로 대만의 개혁종 장로교 신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현지교회의 기도와 격려가운데 학업을 하면서 힘을 모아 교회에서 학비를 도와 왔는데 본국의 총회 선교본부에서 현지인 지도자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주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요!!



(사생명 집회를 위한 모임과 현지인 지도자 장학금 전달모습)

**중국 내지 소식:** 중국내지의 가정교회를 섬기는 자매의 소식입니다. 27 일 R 시에선 교회를 철거하겠다고 공안들이 예배 도중 기중기를 가지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성도들이 찬양을 하며 막아서는 바람에 철거가 중단되어서 안심을 하였는데, 사흘 뒤 교인들이 없는 한밤 중에 다시 교회로 쳐들어와 교회의 기물을 파손하고 십자가를 떼어 갔다고 합니다. 십자가 철거는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지하교회)뿐 아니라 공인을 받은 ‘삼자교회’에서도 진행 중이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자치·자양·자전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기독교 삼자 애국 운동 위원회’(삼자교회)는 당과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데도 십자가 철거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지난 2 월 중국 전역에서 발효된 ‘종교사무조례’에 따른 ‘종교 국유화’ 관련 전국 종교단체 연석회의 결정에 따라 “교회에 국기를 내걸고 시진핑 주석 초상과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대한 선전물도 국기와 함께 걸라고 했습니다. 감시카메라 설치도 모자라 매주 사람이 찾아와 순찰을 돌고,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은 교회는 폐쇄시켜버린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내지 선교가 점점 조여드는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하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제거하는 모습과 교회앞에도 중국 국기를 계양하고 있는 모습)

언어 네이티브 퍼스널 그룹 학습의 장으로 이어 네이티브와 같은 시간 기록장치인 시드보드(S.B.W.D) 세부기를 찾기 전날에 들을 막았습니다. 약 3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중국 각지에서 유학온 학생과 현지학생들이

## 대학교수사역 기독동아리(S.P.M)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신입생 환송회로 야회 바베큐를 갔습니다. 먹으면서 가까워진다고 서로를 낚설어 했던 서먹한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며 가가워 진듯 합니다. 또 다시 시작하는 새학기 이 기독동아리를 통해 주님께 돌아오는 새생명들이 많아지길 소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번학기에는 교수님 한분 더 협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 동아리 지도교수는 3명이 되었습니다. 이 동아리를 섬기는 3명의 교수들은 매주 월요일 한주간을 시작하며 수업시작 한시간전 '아침기도회' 시간을 갖습니다. 다른 교수들 보다 한시간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복음의 현장에서 인도하실 주님의 손길에 인도함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번학기에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대학교수사역에 사명을 잘 감당할수 있도록 소명과 지혜를 부어주길 원합니다.



대학 내에 교수 사역은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황금 어장입니다. 벌써 이러한 현장을 허락하신지지 10년을 넘어 서지만 더욱더 지혜를 구합니다. 역사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전환기의 과정속에 이들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대하며 또 새학기, 새출발을 통해 더욱 힘을 얻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대학내 기독동아리 이모저모)

**가족소식 :** 지난 9월에는 선교지에 나오며 뒤로해야 되었던 짐들을 다시 꺼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주 주일 예배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신 아버님의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병약하고 연로하셔서 늘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아버님과의 이별 소식은 그동안의 자식으로써 불효했던 많은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총회 선교본부에서의 민첩한 섬김으로 후원교회인 광안중앙 교회(김상수목사)에서 장례의 입관과 발인예배를 인도하여 주었고 많은 성도님들과 동역자들의 위로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일가친족들이 함께하는 아버님을 천국으로 보내는 자리에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장례식을 마치고 바로 현지로 돌아와야하는 상황이어서 일일이 찾아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마음이 더욱 아쉬웠습니다.

다시 이 지면을 통해 위로와 큰 격려가 되었던 성도님들과 떨어져 있지만 늘 사랑과 기도로 함께하여 주신 여러 성도님들과 동역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10 월이 자나가며 가을을 보내고 있는 선상입니다.  
굽이굽이 넘어오는 현지의 여러가지 전환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변함없이 저희가정과 중국선교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동역 하는 여러분이 있기에 지금까지 온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남은 사역을 위해 달려야 하는 시간들에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에 또 소식드립겠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목사님과 선교의 동역자님들의 섬기시는 온누리에 축복으로 넘쳐나길 빌며……  
하요한.손숙선교사 그리고 은혜와 은총드립니다.^^

#### \*\*\*\*\* 함께 드릴 기도제목\*\*\*\*\*

1. 조직된 홍콩 개혁종 장로회 독노회가 든든하게 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이양한 현지인 교회가 현지인 목회자를 통해 든든히 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새로 시작한 현지인 개척교회가 반석위에 서 갈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4. 새학기가 시작된 교수사역으로 섬기고 있는 대학내 기독동아리를 통하여 홍콩의 8 개대학과 이를 통로로 한 내지 대학과의 교류도 복음의 통로로 이어지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5. 팁박을 받고 있는 중국 내지 가정교회와 지도자들을 위에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길 기도하여 주십시오.
6.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할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유지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7. 두 자녀(은혜와 은총)들의 사회생활과 복된가정을 이루도록 좋은 '짝'을 만날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